



오전 11시  
교회소식  
선교기도

# 한울림 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 부활절 / 성찬주일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찬양\*

이달의 선교사를 위한 기도

김순중(T국)

내 주님 지신 십자가(찬 339)

다같이

주님여 이 손을

주만 의지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기도인도

인도자

봉헌\*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다같이

말씀교독

사도행전 15:1-35

김원재목사

특별찬양

거룩한 주

샤마임찬양대

말씀선포

“성령과 우리는”

설교자

찬양과결단\*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찬 288)

다같이

축도\*

인도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예배당 건축은 거의 막바지입니다. 관공서의 진행이 느려져 입당이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입당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3. 지난 금요일(4/9) 한운미 집사님의 모친이자 김희석 집사님의 빙모이신 김명현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일(4/12) 오전 10시에 중앙장의사에서 발인예식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예배당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전기공사의 사무처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안전과 과정이 신속히 진행되어 속히 준공검사를 마치고, 입당하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축헌금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5.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6.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눈이 부시게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

작년 하반기에 당시 예배당 공사의 진척 상황을 보면서 금년 4월에 입당하는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언제 입당하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당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예배당 사정상 인원의 제한으로 격주로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새 예배당에 가면 격주로 예배드리는 것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안된다면 1부,2부 예배를 드리면 모든 성도들이 주일예배에 매주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어른만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예배와 모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히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2021년이 시작하고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4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그러들던 코로나는 다시 기승을 부리며 여전히 코로나의 세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인종혐오 범죄가 아시아를 향하여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요즘 사람들이 하루 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간도 무심히 지나가는 하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요즘이 그 누구에게는 잊지 못할 어린 시절이요,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절이며, 평생에 잊지 못할 신혼의 시간이며, 노년에 있는 분들에게는 하루가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 많은 분들이 “그냥 근근히 지냅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근히 지내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위축이 되고, 아시아 혐오로 인해 두려울지라도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 매순간이 귀하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힘들게 지내는 여러분들에게 2019년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전한 김혜자씨의 수상 소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상 소감은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치매로 고생하는 극중 인물의 대사를 읽은 것이었습니다.

“내 삶은 때로는 똥했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지 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짙은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 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대사와 더불어 침언을 하면 눈이 부신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